

관광버스의 열기, 어색해도 비난할 수는 없다



주부들의 삶에 '논다' 혹은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최근의 일.

상류층의 주부들은 골프를 즐기기도 하지만 주부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즐거움은 역시 노래교실이다.

룸싸롱에서 밴드를 불러 놓고 마이크를 잡고 기분을 낼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독점한 놀이 문화였다. 노래방의 대중화와 함께 요즘에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노래 부르기는 온 국민의 레저가 되었다. 여성들이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이같은 노래부르기 대중화 추세 중의 일면이다.

노는 건 죄악시 해온 강박관념

노는 일, 돈 쓰는 일에도 경험의 필요하다. 남자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노는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 술 마시기, 노름, 스포츠, 문학, 성, 미술 등 다양한 분야마다 그 분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정교화시켜 놓을 수 있었다. 애 낳고 기르기, 허드레 집안일,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남자들의 생존 조건이 '노는 즐거움'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여유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자들에게 '논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자기 즐거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남자들의 생활방식이 아닌 것이다. 여자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일,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숨은 노동의 전문가가 되는 데 있었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손 아껴서 뭘하노?" 라면서 며느리에게 근면의 모범을 보여온 시어머니의 호령 아래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에서 자기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는 일이야말로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남에 맞추어서 살아

왔던 주부들이 '관광여행'으로 놀이를 위한 외출을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일이다. 가끔씩 행락지에서 늘그한 주부들이 술마시고 노래하는 모습이 그릇된 행락문화로 매스컴에 등장하기도 했고, 버스가 휘청거릴 정도로 춤추고 뛰고 노래하는 주부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이 차려주는 밥

상을 받으면서 놀러다닐 수 있는 그 짧은 여행시간은 주부의 생활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모처럼 만에 '노는 시간'을 만난 주부들이 어색한 모습이거나 광란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것은 여성들이 그만큼 놀아본 경험이 없고 노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난할 수 없는 주부들의 광란

남자들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서 술 마시는 집의 분위기와 음식과 매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1차부터 시작해 3차 4차까지 주종과 술집이 달라지고 한가지 술만 먹는 게 단조로와질 무렵에는 원폭주니, 폭탄주니 하는 복합주로 취기를 높이는 방법도 개발했다. 또 경제력과, 정서상태에 알맞게 성의 유희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여자들이 만들어 준비해주는 술안주만 해도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모른다. 고기 안주부터 마른 안주, 과일, 전, 마지막의 국수 종류에 이르기까지 술맛을 돋구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로 전수되고 있다.

많이 놀아본 사람들, 집을 많이 떠나본 사람들이라면 굳이 관광버스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뛰어다니며 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은 있고 실컷 풀어내고 싶은 열정은 솟아오르는데 그 방법이 몸에 익지 않아 남들이 보기에 어색하고 '주책스러운' 모습으로 뛰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참으로 모처럼 만에 외출의 기회, 놀이의 시간을 만난 여자들에게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마저도 아깝다.

관광버스 안에서 연출되는 평범한 주부들의 백태를 여자들의 무지와 주책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유치한' 모습 속에는 여자들의 간헐적 삶이 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계속)